

해외 ICT 표준화 동향

2014. 2

3rd Week



목차

1. OpenDaylight 회담: SDN에 오픈 소스와 개방형 표준이 필요
2. 미 행정관리에산국, Circular A-119 업데이트 초안 발표
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

▷ 본 자료의 게시처 : TTA 홈페이지 > 자료마당 > TTA간행물 >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

1 OpenDaylight 회담 : SDN에 오픈 소스와 개방형 표준이 필요

- 보도날짜 : 2014. 2. 4
- 출처 : Networking Planet
- 사이트 : <http://www.enterprisenetworkingplanet.com/netos/.opendaylight-summit-open-source-and-open-standards-needed-for-sdn.html>



- OpenDaylight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프로젝트가 최초의 OpenDaylight 회담을 개최함. 회담의 하이라이트는 하이드로젠(Hydrogen) SDN 플랫폼 발표였음. 이번 행사는 오픈 소스의 힘을 입증했으며 왜 그것이 리눅스와 같은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뿐 아닌 네트워크에도 적합한 모델인지를 밝힘
- 패널 세션에서 오픈 네트워킹 파운데이션(ONF) 이사 댄 피트는 ONF가 가능한 적게 표준화를 시도했음을 설명함. 오픈 네트워킹 연구 센터(ONRC) 이사이자 OpenFlow 발전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구루 파라루카도 전반적으로 피트에 동의함. 오픈 네트워킹 사용자 그룹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닉 리퍼스는 SDN 내 표준의 역할이 있으나, 오픈 소스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함
 - ONF는 OpenFlow 프로토콜 표준 선도 기관임
 - “네트워킹 세계에서 우리는 표준에 강박을 가지고 있다.”
 - “네트워킹이 더 많은 소프트웨어 기반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욱 소프트웨어 산업계처럼 움직일 필요가 있으며 표준화는 가능한 적게 해야 한다.”

2

미 행정관리에산국,
Circular A-119 업데이트 초안 발표

- 보도날짜 : 2014. 2. 10
- 출처 : ANSI
- 사이트 : http://www.ansi.org/news_publications/news_story.aspx?menuid=7&articleid=3869&source=whatsnew021014

- 백악관예산집행부(OMB)는 제안된 OMB Circular A-119, “자발적 합의표준의 개발 및 활용과 적합성 평가 활동에 연방정부의 참여”의 업데이트 버전을 공공 검토 및 코멘트를 위해 발표함. ANSI는 표준개발기구, 산업계, 학계, 정부 기관 대표자들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향후 미 정부의 자발적 합의 표준 사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안된 초안을 리뷰하도록 강력히 장려함
 - 현재의 Circular A-119는 1998년 OMB가 마지막으로 개정한 버전으로 기술 이전촉진법(NTTAA)과 함께 미 연방 기관이 정부고유표준 대신 민간 부문 개발 표준 사용을 고려하도록 공동 지원함
- 제안된 변경사항들에는 연방 규정 내 자발적 합의표준의 사용, 참조 및 지적 재산권 병합, 정부의 표준 개발 활동 참여, 국제 적합성 평가 계획 및 규제 협력, ICSP의 역할 등을 포함됨
- 2012년 OMB는 2012년에 마지막 버전 이후로 표준, 적합성 평가 및 정부 규정과 관련되어 일어난 중요한 변화들을 반영한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었음. ANSI, 표준 개발 기구, 적합성 평가 단체, 일반 시민 등 총 70명의 이해 관계자들이 제안 된 개정과 관련하여 OMB에 코멘트를 제출함

▷ 제안된 Circular A-119 업데이트 초안 :

<http://www.whitehouse.gov/sites/default/files/omb/infocoreg/revisions-to-a-119>

▷ 코멘트 수렴 기간 등을 포함한 연방 관보 공지 :

<https://www.federalregister.gov/articles/2014/02/11/2014-02891>